

“조정은 열린 마음과 정성이 중요”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언론중재위원 (2008. 3. ~ 2009.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여성법관회의의 부회장으로 선출돼,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의 한국 유치를 이끌어냈던 김영혜 전 부장판사. 21년간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다 2010년 1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혜 상임위원을 만났다.

판사, 변호사, 공직자로서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셨는데, 그동안 다뤘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 퇴직 무렵에 신기술투자 사건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내용이라 심리가 어려워 재판이 오래 걸렸습니다. 원고는 승소했지만 동업회사의 편법에 따라 사실상 경제적 이득은 별로 없음에도 진실과 정의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서신을 재판부에 보내왔습니다. 법관의 공정성과 진실발견을 위한 법관의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고맙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계여성법관회의의 부회장과 한국 유치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 개인과 여성 법조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리라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성법관이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에 여성 법관이 하기 어려웠던 기획과 집행 등 행정경험을 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야를 국내에서 해외로 넓힐 수 있었고, 국제적 회의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후배들에게 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 법관이 소수자인 시절부터 활동해 오셨지만, 현재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확대되고 여

성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위상의 제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은 이 사회의 1/2을 구성하는 의미 있는 소수자 그룹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국가나 사회의 민주화, 기회균등, 인권,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자로서 살아본 경험과 감수성은 다 함께 하는 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권위적이지 않고 평등적, 민주적이며 상하 직급 간의 소통이 보다 자유로와 사회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사회 전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조명하는 칼럼을 언론에 오랫동안 기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강력사건, 자살 등 많은 그늘이 있고 밝지만은 않은 분위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육적, 정책적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비판에만 치중하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선정적,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언론은 독도문제, FTA, 올림픽에서의 판정 시비 등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 위주로 치밀하게 파고들며, 사회적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선제적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중재위원을 역임하셨고 판사로 재직하실 때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을 많이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정은 양보에 의해 타협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형식적으로 시비를 가릴 경우 양금이 남는 것에 비해 마음의 분쟁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에서 열린 마음과 정성으로 당사자들의 사정을 경청하고 어루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정에 있어서도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지나친 양보를 강요하는 것과 같이 정의의 기준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재즈콘서트 무대에 선 경험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와 즐겨 하시는 취미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답지 않게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조카와 함께 2NE1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는데, 그들의 밝음과 새로운 사고와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는 일과 업무에 묻혀 살면서 살림에 신경을 안 쓰다가, 요즘에는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요리의 오묘한 세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재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사자가 수긍하고 조정이 성립되는 것을 보면서 위원회의 순기능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소송이 복잡해질수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독자분들도 언론분쟁과 관련된 문제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와 국민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서 국민들이 위원회를 더 많이 알고 다가가기 바랍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